

# 손흥민, 토트넘 챔스 첫 승 이끌어

### 후반 26분 에릭 라멜라의 침투패스 오른발 슛으로 연결 CSKA 모스크바 1-0으로 제압

최근 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8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헵키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CSKA 모스크바를 1-0으로 이겼다. 이날 경기 유일한 골은 손흥민으로부터 나왔다. 손흥민은 11'의 균형을 이어지던 후반 26분 에릭 라멜라의 침투패스를 그대로 오른발 슛으로 연결, CSKA 모스크바의 골문을 열었다. CSKA 골키퍼인 이고르 아킨페프의 손에 맞은 공은 천천히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 갔다. 오프 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움직임과 이를 놓치지 않은 라멜라의 정확한 패스가 돋보인 장면이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나와 이근호의 평범한 슛을 뒤로 빼뜨린 아킨페프는 손흥민을 상대로 다시 한번 악몽을 경험했다. 직전 경기였던 지난 24일 마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멀티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다시 한 번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주포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연일 중요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새로운 구세주로 떠올랐다. 시즌 득점은 5골로 늘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 시절

을 포함해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6골로 늘린 손흥민은 박지성(5골)을 넘어 역대 한국인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두 경기 만에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챙겼다. 승점 3(1승1패). 토트넘은 다음달 19일 레버쿠젠과 3차전을 갖는다. 한편 토트넘 핫스파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44) 감독이 연일 계속되는 손흥민(24)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에릭 라멜라의 침투패스를 받아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CSKA 모스크바의 골망을 갈랐다. 덕분에 토트넘은 러시아 원정에서 값진 승점 3을 챙겼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성적은 1승1패가 됐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구단 트위터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날 경기 뿐 아니라 지난 2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마들즈브러전 멀티골 등 손흥민이 질정의 감각을 뽐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포체티노 감독의 손흥민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그의 득점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고마워했다. 또한 포체티노 감독은 "매우 만족스러운 승리다. 우리가 상대에 비해 훨씬 나은 플레이를 했다.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다"면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헵키 아레나에서 열린 CSKA 모스크바와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서 "모스크바 원정은 항상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선수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스포츠과학센터 개소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전북스포츠과학센터의 개소식이 지난 27일 전북체육회관 2층에서 열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체육회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를 포함해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박영욱 한국스포츠개발원 원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3월 지역스포츠과학센터에 선정되어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운영비와 장비를 포함해 9억원을 지원받아 29종의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였으며, 매년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에서 "스포츠과학센터가 스포츠과학사대에 걸맞게 우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 내 월드컵으로 성장하는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민근기자



## 전라북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성료

전라북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된 '2016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배구를 비롯한 골프, 줄다리기, 피구, 등산, 체조, 단체줄넘기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도내의 14개 시·군의 여성 체육인들이 대거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종목별 우승팀으로는 단체줄넘기 순창군, 피구 군산시, 줄다리기와 체조 및 골프 김제시, 배구와 등산 전주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만큼 부족함이 많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경기에 임해 주신 여성체육동호회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개최될 '2017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남원시에서 개최된다.

/김민근기자

##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성료

지평선의 고장이자 새만금 중심도시인 김제에서 제15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25일 약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와 함께 하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달림이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번 대회 최다 단체상에는 정읍시마라톤연합회가 하프, 10km종목 총70명이 참가하여 수상하였고, 최고령상은 하프코스 참가자 1940년 생 유희식씨가 수상하며 달림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안내책자, 배번호, 완주메달, 기록 및 기록증(5km 제외)이 제공되었고, 하프와 10km 참가자들에게는 지평선 합살 10kg 5km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기자

# K팝 남자 아이돌 그룹 데뷔 위해 1년간 여행 떠나다

## '소년24' 통해 뽑힌 소년 28명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흰색 배경에 푸른 조명이 가득한 미래 공간이 펼쳐진다. '소년24'가 초대하는 도심 속 판타지 월드다. '소년24'는 K팝을 이끌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22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49명의 연습생들이 대결하는 과정을 담은 엠넷의 유닛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24'를 통해 뽑힌 28명의 소년들이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1년 동안 서울 명동 메사빌딩 10층에 마련된 전용 공연장에서 매주 공연을 펼친다. 최종 데뷔를 향한 1년간의 긴 여정이다. 앞서 출연진 블라인드로 진행된 예매에서 티켓이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지난 6월18일 첫 방송부터 8주 동안 쌓은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공연은 아팩토리(F-FACTORY)라는 가상 미래 공간을 가정한다. 미래 소년 28



지난 27일 오후 서울 메사빌딩 보이즈24홀에서 열린 엠넷 '소년24' 라이브콘서트 프레스룸에서 소년24 멤버들이 열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명이 살고 있는 가상공간이다. 빛의 터널, 수시로 얼굴이 바뀌는 대형 마스크, VCR 등 다양한 특수 장치를 미래를 콘셉트로 공연장을 꾸몄다. 방송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옐로우 유닛 뿐 아니라 그린·스카이·화이트

등 네 개 유닛이 '소년24'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E' '올로!(YOLO!)' '붐(Boom)' '팝(Bop)' '캔디 스톱(Candy Stop)' '게임 보이(Game Boy)' '타임 리프(Time Leap)' '라이징 스타(Rising Star)' 등을 부른다. 그룹 '비투비'의 민혁, 인기 작곡가 신혁 등 강력한 제작진이 참여해 만든 노래다. 이 외에도 각 유닛의 특별한 퍼포먼스, 합동 퍼포먼스, 각 팀의 같은 포지션끼리 뭉쳐서 선보이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 돼 있다. 관객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개 국어로 가사를 제공받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날의 MVP를 뽑을 수 있다. MVP로 뽑힌 한 명은 '유니 익스클루시브' 무대를 꾸미게 된다. 결국 1년 뒤에 있을 최종 멤버 선정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연하는 매일 매일이 하나의 서바이벌이다. 하지만 28명의 소년들은 "서바이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